

레미콘트럭의 안전운전 (Ⅳ)

— 우리나라 계절 특성을 중심으로 (下) —

(가을철·겨울철)

宋 南 起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 강사〉

5. 가을철 안전운전

1) 9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9월은 가을의 문턱으로서 여름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시베리아대륙에서 분리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게된다.

그러므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지만 구름이 낀 날도 많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평균 10℃ 내외로 커져 안개가 자주 끼며 가끔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폭풍 등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벼가 누렇게 익고 각종 과실이 주렁주렁 가지마다 매달려 익어가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 할뿐 아니라 날씨도 매우 좋아 하늘이 높고 푸르기 때문에 「천고마비지절」(하늘이 높고 말이 살핀다는 뜻으로 가을이 썩 좋은 절기임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관광·야외소풍객 등이 증가하면서 행락차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행락질서가 문란해지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으로 차내의 질서와 운행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와 손수레, 우마차 등이 수확기를 맞아 통행량이 급증하게 되어 국도나 지방도 주변은 통행

하는 인구가 많고, 또한 여름 장마철로 도로나 다리 등 교통시설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으므로 다른 때에 비해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교통환경이 나쁠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의 수학여행과 소풍 등으로 기차 전세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정원 초과, 무리한 배차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2) 10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10월은 가을의 중반으로서 우리 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공휴일 등이 많아 전국적으로 귀향객과 성묘객의 이동으로 교통혼잡이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행락철과 관광철을 맞아 고적지, 유원지 등 명승지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도시 근교에 있는 행락장으로 가족동반과 회사 등의 단체야유회 등 소풍객이 증가하면서 차내에서의 음주·가무 등의 무질서와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가족 단위의 이동이 예년보다 항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하이킹족도 늘어나는 등 교통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달이다.

농촌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운반하는 경운기·트랙터·우마차·손수레 등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도로변에 주차·정차하고 있는 등 안전운

전에 장애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는 주의력을 집중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환절기에 따른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항상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하며 안개가 자주 끼는 등 기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기상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교통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하는 방어운전자세를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3) 11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11월은 겨울의 문턱에 선 가을의 마지막 달로써 북태평양의 해양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한냉한 대륙성고기압이 우리 나라를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비교적 발달한 기압골이 통과할 때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때도 있으며,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여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기도 한다.

즉, 남해안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평균기온이 10℃ 이하의 분포를 나타내며 중부지방은 11월 중순, 남부지방은 11월 하순부터 일일최저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며 눈도 내리기 때문에 겨울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게 되므로 난방시설을 점검해야 하고 연료 확보를 위한 유류와 연탄 등의 월동 물자 수송과, 중순 이후에는 중부지방으로 부터 김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추, 무우 등 김장용 농수산물의 수송이 증대되어 화물차의 운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과속이나 과로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때이다.

4) 가을철 교통안전대책

혹서기와 장마철인 여름철이 지난 가을철은 단풍으로 물든 명승지나 도시근교를 구경하기 위한 소풍객과 수학여행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등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추수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때이므로 화물차 등의 운행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의 철저한 예방점검과 장비를 잘 관리하여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먼저 운전자는 주의력을 집중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핸들을 잡으면 오직 안전운전을 위한 전방과 측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승객이나 탑승자와 잡담을 하거나 한눈을 팔면서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가을철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시외버스가 과속과 경쟁운행함으로써, 잘 포장된 도로에서 택시가 기회만 있으면 부당한 앞지르기를 하거나, 자가용 승용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거나, 트럭 등 대형화물차가 과속으로 질주하는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으로 관광버스 회사가 한창 바쁘게 돌아감에 따라 운전자도 따라서 바쁘게 운행하므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주행을 하다가 차량의 고장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거리 운행할 때는 2시간이상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교통체증이 심할 때 노건을 주행하거나 무리하게 앞지르기해서는 안되며 특히 곡예운전과 경쟁운전 등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승객 또는 탑승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 일단 차를 타면 운전자와 같은 마음으로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즉, 운전자와 안전운전과는 상관이 없는 잡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음식물 특히 술을 권하거나 차내에서 운전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고 술을 마시고서 무질서하게 춤을 추며 쾅가리 등을 울려서는 안된다.

차창 밖으로 빈병, 오물, 휴지 등을 버려서는 안될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앞지르기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무리한 운전을 하게끔 충동을 해서는 안된다.

가을 장마 또는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나 기상이 좋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빗길 운전 대비한 윈도우·와이퍼 작동 등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행전 기상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중 폭우가 쏟아질 때는 시계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급제동이나 과도한 핸들조작 등을 피하고 보행자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절대로 조급한 운전을 하지 말고 앞차와의 차사이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과 교양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고충 상담을 통한 신상의 어려움과 건의 등을 수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등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아 직접·간접적으로 교통안전 효과를 거양하도록 한다.

6. 겨울철 안전운전

1) 12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12월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달로써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맑은 날이 많으나 강한 북서계절풍과 함께 한파, 폭풍, 대설 등 겨울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 속해 있으면서 아시아대륙의 동쪽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고 건조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의 혹한과 건조한 공기로 인하여 불을 많이 사용하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체의 저항이 약해져 감기, 기관지염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기온이 매우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체감온도도 낮아지고 얼음, 눈 등으로 동상에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또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시간이 길어지며 기온이 낮아 운전자는 행동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며 야간운전도 많이 하게 되는데도 야간운전을 위한 일상점검을 소홀하게 된다.

눈이 내리고 노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면 도로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적설반사광은 순간적으로 시계를 차단시켜 교통사고

를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이상 난동일 경우에는 짙은 안개로 비행기의 이 착륙이 금지되는 등 안전운행과 차량 소통에도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상이 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한 방어운전자세를 익혀야 한다.

월말에는 연말연시에 따른 귀향이나 연휴를 보내기 위한 인파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가용차량의 운행횟수도 늘어나게 되며 겨울철 특성에 따른 빙판길 또는 눈이 쌓인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충돌, 추돌 등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일시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중앙선, 차선 그리고 도로 주위의 각종 표지판의 식별이 곤란해지게 되어 어림잡아 운전을 하게 되므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므로 주위 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주행 상태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운전해야 한다.

눈이 내린 다음 날 기온이 뚝 떨어져 눈이 얼어 빙판이 되면 마찰 계수가 떨어지므로 방향전환과 제동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철길 건널목이나 교차로에서는 우선멈춤을 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타이어를 스노우·타이어로 교환하거나 체인을 감아 미끄러짐을 방지토록 하고 삼, 곡괭이, 모래 등의 월동장구를 꼭 휴대해야 한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동창회, 망년회 등 각종 연말 모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많고 또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안전운전하는 습관과 방어운전 자세를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2) 1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로써 시베리아의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하여 그 세력이 우리 나라 쪽으로 확장되면서 강한 북서계절풍과 함께 한파가 주기적으로 다가와 혹한 폭풍, 해일, 대설 등 겨울철의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한난의 변동이 심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기상 재해가 가장 많은 달이므로 일기예보 등 기상정보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달이다.

기상과 관련있는 교통사고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었거나 전날에는 눈·비가 왔으며 사고지점은 커브길이 되어 얼어있음에도 운전자는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사고가 많으며 특히 연말연시 특별수송기간 중에 70%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해가 많은 달에는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며 차사이의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과속과 무리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속도를 줄이고 서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좌석안전띠 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는 아는 것보다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할 때에는 추측운전이나 편법운전, 자기중심적인 운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운전에만 주의력을 집중하고 마음에 여유를 두고 양보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한다.

3) 2월의 기상조건과 특성

2월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달로써 1월에 비해 한냉한 대륙성 고기압이 다소 약해져 추위가 약간 풀리지만 일시적인 한파로 늦추위가 나타나기도 하며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할 뿐 아니라 눈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를 나타낼 때가 많다.

특히 이러한 때에는 운전자로서 교통환경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기상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기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운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운전자의 정신자세가 해이해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방주시 태만, 무리한 앞지르기, 과속, 중앙선 침범,

차량 정비 불량, 음주운전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업자는交通安全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겨울철交通安全대책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기상이변으로 도로여건 등 교통환경이 좋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날씨가 몹시 춥기 때문에 차량통행량도 다른 계절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연시와 연휴, 설날 등의 공휴일이 많아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

특히 겨울철 교통사고는 눈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면 접촉사고와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① 눈이 내릴 때, 빙판길에서의 충돌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모래, 삽 등)를 준비하고 어떠한 들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처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한다.

② 겨울철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배터리는 23℃~4℃ 이상이 되어야 자기 용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영하 20℃ 이하가 되면 그 용량은 거의 50% 이하로 떨어진다.

③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저속기어로 발진하고 타이어를 공회전 시키지 말아야 한다.

④ 급경사를 올라갈 때에는 다 오를 때까지 저속기어를 사용하고 중간에 기어변속을 되도록 하지 않는 운전을 해야 한다.

⑤ 「급발진」 「급가속」 「급회전」 「급제동」 등 「급」(急)이 들어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정지할 때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속도를 줄인 다음 「풋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⑦ 「차사이거리」는 이상 기후일 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00~50/100 감속과 더불어 2~3배 확보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다리 위, 응달진 곳, 차가 많이 다녀눈이 다져진 차바퀴 자국은 빙판이 되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할때에는 항상 이러한 곳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⑨ 눈이 내리고, 창문에 얼음 또는 성애가 끼이게 되면 시계가 장애를 받게 되어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출발하기 전에 특히 앞·뒤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야 하며 창닫기의 점점과 유리창의 세정액은 부동세정액으로 바꾸고 충분히 채워서 주행해야 한다.

⑩ 창문을 꼭 닫고 히터를 틀면서 오랫동안 운전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들어올 위험이 많으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환기를 시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차내에서는 금연하는 것이 좋으며 휴게소에서 휴식할 때 차밖에서 피우도록 한다.

⑪ 겨울철에는 출발하기 전 엔진을 저속으로 5분 정도 공회전을 시켜 엔진을 덥게 해 준 다음 출발하는 「난기운전」을 하도록 한다

바쁘다고 찬엔진을 급가속으로 공회전시키는 것은 엔진의 마모를 촉진시킬 뿐이다.

⑫ 눈길이나 물이 있는 도로를 주행한 후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얼어붙어 출발할 때 「케이블」이 끊어질 경우가 있다.

수동변속기어인 경우에는 기어를 1단 또는 후진 위치에 놓고 받침목으로 차를 꼭 받쳐 놓도록 한다.(자동변속기어인 경우에는 주차위치(P)에 놓아야 한다.)

기온이 떨어지고 눈·비가 오는 등으로 운전자는 게을러지게 되어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한 운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기술이 좋고 경력이 많으므로 과신하고 자만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에 직결되는 것을 명심하여 철저한 점검과 항상 신중히,

안전된 마음과 몸, 겸손한 자세로 운전에만 주의력을 집중하고 변화하는 도로 상황과 교통 상황에 대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특히 운전자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감기 몸살 등으로 운전자가 건강치 못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약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이 오거나 부작용 등으로 운전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을 교육하고,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겨울철 특성에 따라 사고 많은 곳에 대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Ⅲ. 결론

안전운전을 함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짐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가 무사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가지 교통여건에 대처해서 운전하는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즉 사람, 차량, 도로, 날씨, 조명, 교통량 등 6가지 방어운전의 요소를 명심하여 운전을 하면 무위반 무사고운전을 하게 되어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발전하게 되어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발전과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운전자가 된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의 계절적인 특성과 교통사고와의 함수관계를 살펴 보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교통대책을 설명하면서 안전운전을 기원해 보았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어느 계절에 관계없이 특히 운전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 엔진오일의 양과 점도, 냉각수, 팬벨트의 장력, 배터리, 연료, A.B.C.페달(악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핸들의 유격 등을 점검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이상한 소리, 냄새가 나지 않는가를 코(후각), 귀(청각)등 5감을 이용하여 차량의 이상에 대해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가을의 기도

金 顯 承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함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지 않았을 때 닥쳐오는 불행은 항상 후회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일상점검은 매일 아침 세수하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어운전자세를 가져야 하며 운전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올바른 운전을 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큰 사명을 가진 교통안정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기 보다는 술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인명을 존중하면서 특히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으로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향도가 되어야 한다.